한국대표정수기업체 웅진코웨이개발

렌탈제도'와 코디'로 깐깐한 정수기, 깐깐한 서비스'이미지 지켜

▲ 경기도 포천에 준공한 생산공장

웅진코웨이개발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수기 업체로 56%의 M/S를 확보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1998년 4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경제적인 렌탈제도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시장확대를 꾸준히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탈회원이 올해 7월 기준 1백 30만 회원을 돌파하였다.

렌탈 제도는 고급 정수기를 일정금액을 받고 정수기를 빌려주는 제도로 정수기 초기 구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수기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 정기점검 및 필터교환까지 실시하여 경제성과 편리성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렌탈제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코디'. 정수기 관리전문가 코디(CODY : Coway - lady)는 렌탈정수기의 정기점검과 필터교환, 멤버쉽 회원관리 및 제품에 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고객만족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12월 6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신지식인에 선정될 정도로 전문직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웅진코웨이개발은 이러한 렌탈제도와 코디제도에 힘입어 1999년도 매출액 1,241억원에서 2000년 2,773억원, 2001년 5,260억원으로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 2002년에는 매출액 7,488억원, 렌탈 회원수 17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수많은 대외적인 인증도 획득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4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2년 연속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대한민국 기업이미지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웅진코웨이개발은 렌탈제도를 정수기에서 비데(온수세정기), 공기청정기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렌탈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연수기와 비데 등 욕실전문 브랜드인 '룰루(LooLoo)'를 런칭하고, 올해 6월 11일에는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 새로운 생산공장을 준공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비데와 정수기 필터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정수기는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수기 보급률은 15.8%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규모 또한 1조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 선도기업인 웅진코웨이개발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혁신과 가치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현재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렌탈사업을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초일류 환경기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